

영암, 남성 교육 프로그램 '위풍당당 신중년 남성학교'

DIY전원주택 짓기·드론 전문가 과정 운영 중장년 남성들의 다양한 욕구·활동성 반영

영암군이 지난 6일부터 남성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인 '위풍당당! 신중년 남성학교'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위풍당당! 신중년 남성학교'는 영암군이 최근 남성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DIY 이동식 전원주택 짓기'와 '드론 전문가 과정' 등 2개 과목을 2021년 전남도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제안해 선정된 사업으로 남성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청 당시부터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남성들의 다양한 욕구와 활동성을 반영한 실습위주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접수자가 몰려 대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

현재 2개 과정, 주 4회, 30회차 과

정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각 반 20명씩 40명의 중장년 남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과 농사일로 바쁜 중장년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이며 연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의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정방문형 문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평생교육에 참여가 어려웠던 농촌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신덕정 배움마을 학교'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위풍당당! 신중년 남성학교'는 영암군이 최근 남성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DIY 이동식 전원주택 짓기'와 '드론 운용 전문가 과정' 등 2개 과목을 2021년 전남도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제안해 선정된 사업으로 남성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암군 제공

신안 암태기동경로당 준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암태면 삼거리 기동마을에 전국최초 AI 접목 통합플랫폼 형태의 스마트경로당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신안군수 박우량, 전라남도의회 김문수의원,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원을 비롯한 마을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동스마트경로당은 기존경로당의 건물 노후화와, 교통사고의 위험, 주차공간이 없는 가운데 운영해,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에서 마련한 부지 367㎡(111평), 건축면적 106㎡(32평), 지상 1층 규모로 방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2개와 주차장을 갖춘 시설로 올해 1월에 착공해 7월에 준공했다.

또한 신안군과 KT가 매점사업을 연계하고 사랑의 열매와 신안지역 자활센터가 함께해 경로당에 기가네트워크 인프라와 AI를 기반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 문화, 여가,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으로 구축해 섬마을 작은 복지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성태 기자

무안군, 강소농 육성 정책 집중 추진

시범사업에 국·군비 5천800만 원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강소농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정과 자율소모임체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소농 육성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강소농이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 품질 향상, 고객 확대 등 경쟁력을 키워가는 중소규모 가족농을 말한다.

군은 강소농 자율소모임체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 선도농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군비 5천800만원을 투입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개선과 창업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강소농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완료했으며, 지난 2012년

부터 2020년까지 육성된 강소농 소모임체 3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창업기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소농 경영개선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15일부터 맞춤형 강소농 후속교육을 실시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진 농가와 기관 현장 학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영농 분야별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강소농의 자발적 성장과 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율소모임체 33곳을 구성하고 강소농 686명을 육성한 바 있다. /고민재 기자

함평군 '원추' 단감...추석 전 '첫 수확'

당도 15브릭스·과중 350g의 대과 품종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함평천지 감연구회'를 중심으로 관내 20농가 5.0ha에 국내육성 신품종인 '원추' 단감 재배지를 조성해 왔으며, 추석 전 첫 수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국내에서 재배되던 단감의 80% 이상이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에 편중돼 있어, 농촌

진흥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추', '원추', '로망' 등 다양한 국산 품종의 단감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원추'는 '대추'와 '신추'의 교배종으로 식감이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으로 이달 중순이 수확 적기이다.

군 관계자는 "원추는 15브릭스의 고당도로 과중은 350g 안팎의 대과 품종에 모양도 좋아 추석 차례상에 올리기에 제격"이라고 말했다.

나재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품평회 등을 통해 우리 품종인 '원추' 단감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또한 다양한 국내산 단감 품종을 육성, 편중 재배로 인한 수급 문제를 해결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운 기자

강진군 가우도 모노레일·출렁다리 준공

모노레일 정상 운영, 이용요금 2천 원

강진군은 지난 10일 이승욱 군수, 위성식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군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준공식을 가졌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1.8m의 폭과 150m의

길이, 높이 15m로 설치해 지난 7월 15일 개통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우도 돌레길 코스와 연계돼 짜릿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모노레일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했으며 교통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가우나루에서부터 섬 정상에 자리한 청자타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길이는 264m, 차량 30인승 2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청자타워까지 올라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

한편, 가우도 모노레일은 지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1일부터 정상 운영 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2천 원이다. /전문재 기자

목포시 청호·자유시장 추석 맞이 수산물 할인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까지 수산물을 할인한다.

할인은 청호시장, 자유시장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시장 입구 환급부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 구간에 있는데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 ▲5만1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은 5천원이 각각 환급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전통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는데 전남에서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이 선정됐다. /박성태 기자